

가을 상설 공연·문화 감상회 풍성 /

식영정에 울려 퍼진 '수궁가' 한자락

9월 마지막 토요일이었던 지난달 27일, 담양 식영정(息影亭)을 찾은 이들은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 선선한 가을 바람이 살랑이는 자연 속에서 흥겨운 '줄풍류'에 이어 판소리 '수궁가' 한자락과 은은한 대금 소리를 접한 사람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전통소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20일 첫 선을 보인 '옛 향기에 취해 풍류 음악을 그리다'였다.



담양 식영정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판소리, 무용 등 다양한 전통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옛 향기에 취해 풍류 음악을 그리다' 행사가 열린다. 지난달 27일 열린 국악 실내악단 '황토제' 공연 모습. (담양군청 제공)

가을날,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 줄 문화 행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 기념물 1호인 담양 식영정에서 열린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2008 전통예술 고택 상설 공연' 프로그램. 오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식영정에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산조, 가곡, 무용, 판소리, 줄풍류 등 우리 전통음악을 즐길 수 있다. 전남대소리문화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수준높은 무대를 선사하는 게 특징이다. 지금까지 국악실내악단 '황토제'와 선영숙·주순연·심상남·정인봉 씨 등이 무대에 섰고 오는 4일에는 송준영·전인삼·김무길 씨 등 각계 명인들이 공연을 한다. 또 11일과 18일에는 송준섭·심상운·박종선 씨 등 명인 명창들의 공연이 예정돼 있다. 다소 딱딱한 프로그램이 아쉽기는 했지만, 딱딱한 공연장이나 도심 야외공연장에서 보고 듣는 국악 공연과 달리, 전통 공간에서 공연이 진행되는 터라 관객들은 신선하다

매주 토요일 전통예술 고택 상설 공연 베토벤·佛문화원 뮤지컬 영화 감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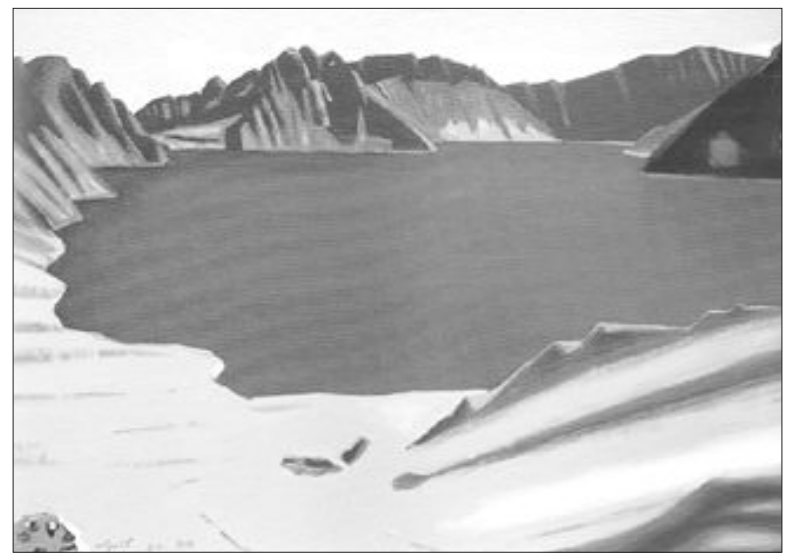
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소쇄원에 들렀다 우연히 공연을 접한 김경아(38)씨는 "자연 속에 둘러싸여 듣는 대금 소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다"며 "식영정이라는 공간이 국악과 잘 어울려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붕위의 바이올린" 등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고전뮤지컬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됐다. 클래식음악감상회 '베토벤'에서는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뮤지컬 영화 감상회'가 열린다. 상영작은 진 켈리가 주연한 '파

(오후 4시)에는 내년 2월 한국어 버전 공연이 예정돼 있는 '돈 주앙'을 상영한다. 또 10월(오후 6시)에는 2년 전 국내에서 공연돼 열띤 환호를 받았던 프랑스 히트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527-2500. 가을날의 추억을 만들어 줄 재즈 공연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즈 그룹 'JS 엔터테인먼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광주시 동구 충장로 카페 '아이리스'에서 10월 한달간 '무로 재즈 콘서트'를 연다. JS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주자인 김은옥, 김인철, 문새롬, 이만형, 김성광 송광우, 이재지, 조서광, 정희수, 김진씨 등이 매주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을 재즈 세계로 안내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가 조규일 화업 60년 회고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서양화가 백민(百民) 조규일(75)씨가 60년 화업 인생을 되돌아 보는 뜻깊은 전시회를 연다. 조씨는 오는 22~28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60년 회고전'을 갖는다. 호남 자연주의 회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 온 조씨는 이번 전시에 처음으로 붓을 잡았던 고등학교 시절부터 최근까지 그려 온 140여 점을 선보인다. 고회를 훌쩍 넘긴 나이에도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최근에 만 20여 점의 작품을 창작하며 사지 않는 예술 혼을 불태우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1951년 작 '자화상' 등 자신의 화업을 주제로 그린 작품도 많이, 고집스러운 화가의 예술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게 가 볼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최근에는 작품 가격에 따라 작가들을 평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그림 한 장 팔리지 않더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 붓을 들어야 하는 게 화가의 길이다"고 말했다.



'백두산 천지'

서양화가 오지호 화백의 수제자인 그는 평생 예술을 통해 봉사의 삶을 살고 있는 작가이다. 지난 1993년 미술품 350여 점과 집 등을 판 뒤 보성군에 기부함으로써 보성군립미술관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지역민들에게 미술 향유기회를 제공했다. 또 독립기념관 모금전, 겸사동동기 자선전,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

모던앙상블 정기연주회

7일 오후 7시30분 드림아트홀



모던앙상블 정기연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드림아트홀에서 열린다. 올해로 9번째 연주회를 맞는 모던 앙상블은 이날 공연에서 플루트, 바이올린, 피아노 트리오인 도플러의 '아메리칸 듀엣 작품 37'과 '엘레지'로 잘 알려진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트리오 1번을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베토벤 트리오 작품번호 11'로 보통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바이올린 대신 클라리넷으로 편성, 색다른 느낌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연진은 천현주(피아노), 박지혜(플루트), 양수현(클라리넷), 서수연(바이올린), 서민정(첼로) 씨 등이다. 문의 011-324-34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트인더마트

빅마트 시안갤러리, 9일까지



김선미 작 '모래성'

장바구니를 든 관객들은 어떤 작품을 골랐을까? 시안갤러리 광주빅마트 매장에서 열었던 전시회에서 관객들이 뽑은 작품만을 따로 모은 '아트인더마트, 수상작전'을 9일까지 갖는다. 이번 전시에는 김선미, 명현철, 변지수, 서승원, 선예원, 위재환, 이병선, 이윤성, 이혜란, 정선휘, 조성태 씨 등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시안갤러리는 지난 5월 할인 매장 곳곳에 작품을 설치 한 '아트인더마트'전을 열었고, 매장을 찾은 관객들이 다시 보고 싶은 작품 10점을 선정했다. 문의 062-573-017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NIE 교원 연수자 모집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는 신문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신문활용교육(NIE)의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원 원격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원 원격 직무연수는 신문협회가 일선 교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NIE 교사 연수로, 11월10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교원이나 일반인은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나 신문협회 원격 연수 사이트(http://www.kan.teacherville.co.kr)를 통해 6일부터 11월9일까지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1544-7783 /이은미기자 emlee@

'10월 읽을 만한 책' 10종 선정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10월의 읽을 만한 책'으로 '한국의 스티븐 호킹' 이상목 서울대 교수의 이야기를 담은 '0.1그램의 희망'(랜덤하우스) 등 분야별 도서 10종을 선정했다. 선정목에는 '월다이'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해피-앤딩, 우리는 존엄

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공리)와 아빠와 딸의 철학적 대화를 담은 '하루 10분 일주일 할 말과 함께 문화 논쟁'(에코리브)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술의 가족'(창비), '남과 북을 만든 라이벌'(역사비평), '세상을 향해 퍼져라'(산티), '상식 밖의 경제학'(정리출판) 등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해령법률경매' (Haeryeong Real Estate Auction)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on location,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에너지비상' (Energy Emergency) featuring '히팅레일' (Heating Rail) products, highlighting energy efficiency and cost savings.